

전남대 총장 임명 지연 컨트럴 타워 공백 지속

'탄핵 정국' 맞물려 후보자 선출 후 4개월째 '감감' '글로벌 대학'·'지역 혁신 대학 지원' 등 차질 우려

전남대학교 신임 총장 임명절차가 지연되면서 현안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전남대에 따르면 제21대 정성택 총장이 지난 14일 이임함에 따라 15일부터 김병인(사학과 교수) 교학부총장이 총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전남대는 지난해 9월 이근배 교수와 송진규 교수를 선출하고 논문과 연구윤리에 대한 검증을 거쳤다. 이어 같은 해 12월 12일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전남대 자체 검증에 시일이 걸린 탓이지만 교육부의 총장 임용 시점을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국립대 총장은 교육부가 총장 후보에 대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게 임용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명하게 돼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가능한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이런 움직임이 없다.

전남대에서는 총장 후보자 선출 후 현재까지 4개월 동안 컨트럴 타워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도 마찬가지다.

전임 정성택 총장은 전임자 퇴임 후 곧바로 총장으로 임명돼 업무를 처리한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전남대는 '글로벌(Global, Global+Local) 대학 30' 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등의 대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글로벌 대학 30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 육성책의 하나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30곳을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해 1개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 전남대는 두번째 탈락했는데, 오는 22일 정부가 올해 글로벌 대학 사업 일정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도 현안 가운데 하나다. 라이즈는 국정과제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사업 중 하나로, 기존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RIS, LINC3.0, LiFE, HiVE, 지방대학성화사업)을 통합해 예산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체계를 구축하는 지원사업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미 라이즈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정갈등으로 대규모 휴학상태인 의대생 문제도 과제 중 하나다.

전남대 관계자는 "대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전남대에서 총장직무대행 체계가 장기화하면 대학 자체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지역거점대학인 전남대 총장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2025 광주일보 신춘문에 시상식이 1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시 부문 이문희씨, 단편소설 부문 김근수씨, 동화 부문 수이레씨, 광주일보 최권일 편집국장.

신인작가 등용문 광주일보 신춘문에 시상식

단편소설·시·동화 3개 부문

2025 광주일보 신춘문에 시상식이 지난 16일 오후 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정보원 내 국제회의실 리셉션 홀에서 열렸다.

시상식은 수상자와 가족, 광일신문문화회 회원, 문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25 광주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부문 당선자 김근수 씨에게 상패와 상금 300만원, 시 부문 당선자 이문희 씨와 동화 부문 당선자 수이레(본명 김선영) 씨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됐다.

김여수 광주일보 회장은 최권일 편집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광주일보 신춘문에는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장간 이듬해부터 진행해 온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라며 "창작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당선 결실을 이룬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일보는 신문 지면과 문화전문매거진 월간 '예향'을 통해 신인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비롯해 책 발간 소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다"며 "앞으로도 신춘문에 외에도 호남 문화와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5 광주일보 신춘문에는 시 2117편, 소설 272편, 동화 223편 등 총 2612편이 응모됐다. 예년보다 다소 많은 작품이 응모됐는데 '한

강 노벨상 효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올해 신춘문에 작품들은 경향성 측면에서 다소 어두웠다는 후문이다. 우울과 애환, 꿈의 좌초, 죽음 등을 모티브로 다룬 작품들이 많았다. 작금의 비상계엄사태는 공모 기간 마지막에 발생해 작품에 다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응모자들은 광주 전남 외에도 전국 각지에 분포할 만큼 다양했다.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영남, 충청 등에서 투고했으며 외국에서 작품을 보내는 응모자도 있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노태우 미화' 서적 전국 배포 규탄

5·18기념재단 "전량 회수해야"

5·18기념재단이 전직 대통령인 노태우씨를 미화하는 책이 전국 도서관에 배포된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5·18기념재단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노씨에 대한 위인전 '만화로 읽는 인물이야기, 대통령 노태우'가 전국 도서관 20여곳에 배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노태우 위인전 작업과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만화로 읽는 인물이야기, 대통령 노태우"는 지난해 10월 '대통령 노태우 발간위원회'(위원장 김중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 출간한 책이다. 노씨를 위인으로 추켜세워 노씨의 과거를 미화하고 신군부가 자행한 역사적 과오를 희석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5·18기념재단은 "노태우 위인전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저열한 위인화 작업"이라며 "더구나 만화

형태로 제작된 터라 20여곳 도서관 중 대다수에서 책을 아동도서로 분류하고 어린이 대상 서가에 비치해 비판의식이 부족한 어린 독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5·18기념재단은 "노씨는 신군부의 핵심 인물로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깊숙이 관여한 장본인이며,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역사의 죄인"이라며 "노씨 일가는 반성은커녕 5·18 유혈 진압 책임을 광주시인으로 돌리고 있는 노태우 회고록을 수정조차 안 한 것도 모자라 과거 미화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태우 일가가 해야 할 일은 미화로 접لم된 전기 출판이 아니라 회고록 개정을 통한 진정성 있는 사과"라며 "노태우 위인전의 전국 도서관 배포를 즉각 중단하고 배포된 도서를 전량 회수해야 하며, 노태우 일가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건브로커 인사청탁' 현직 치안감 항소심 무죄

광주지법 "금품 제공자 증언 계속 달라 신빙성 의심"

사건브로커를 통해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치안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룡)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A(5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10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제3차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승진 청탁자 전직 경감 B(56)씨와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받는 사건브로커 성모(64)씨도 각각 징역 8월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징역 6월에서 징역 5월로 감형됐다.

A씨는 광주경찰청장 재임시기인 2022년 2월 성씨로부터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받은 현금 1000만원은 광주경찰청 소속 B씨가 승진 인사청탁 명목으로 성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B씨와 성씨도 같이 재판을 받았다.

성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A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성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뇌물 수수 증거는 성씨의 증언이 유일인데, 금품을 제공한 날짜, 방식 등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면서 "성씨가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때마다 진술을 계속 변경한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노동권익센터 출범

광주노동센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통합한 광주노동권익센터(2024년 10월 24일자 광주일보 7면)가 출범했다.

16일 광주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광주노동센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등 광주지역 3개 노동관련 센터가 통합된 광주노동권익센터(센터)가 지난 1일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3층에 자리잡았다. 앞서 3개 센터의 사업이 중복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지난해 7월 '광주시노동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광주노동권익센터 설립이 본격 논의됐다.

센터는 기존 3개 센터가 해왔던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정책 연구조사, 노동 취약계층·청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노동인권 교육과 홍보 문화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교회)



총장
김경운 박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사회	신학과	30 / 5
	한국어교육학과	1 /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 5
사범	유아교육과	8 / 2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1 / 8
총계		84 /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www.kwangshin.ac.kr